



성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제자로 부르시다. 카라바조 작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c.org@gmail.com

주임신부 : Joseph Juracek,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효주 (뜻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사무엘 상 3,3ㄴ-10.19

화답송



(후렴)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1코린토 6,13ㄴ-15ㄱ.17-2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ㄱ

○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복음 | 요한1,35-42

성가 | 입당성가 [2]:1,2절 예물준비 [217]

영성체 [180] 파견성가 [2]:3,4절

미사 봉헌 가족

연미사		봉헌
김경련 울릿다	김계현 소화테레사	
김경련 울릿다	윤요한, 윤루시아	
김경련 울릿다	익명	
김경련 울릿다	익명	
김학순	익명	
이정진 안토니오 2주기	익명	
이정진 안토니오 2주기	가족	
이정진 안토니오 2주기	이지훈 아녜스	
송크리피나	송준호 바오로	
강임순	권민석 예비신자	
이순주 수산나	김영숙 카타리나	
노재준 요한, 안을선 모니카	가족	
이정백 미카엘	김계현 소화테레사	
원근자 체칠리아	민완준 필립보	
김규동 안토니오	김윤수 미리암	
생미사		봉헌
조귀숙 마끄리나	허인선 살로메	
진오도 가정 영육건강	가족	
류선희, 송노엘 모녀 영육건강	익명	
박혜화 도미니카	익명	
큰집, 원조	익명	
린다김 영육건강	익명	
이영애 레지나 생신축하	익명	
이영애 레지나 생신축하	이지훈 아녜스	
이영애 레지나, 이미진 조앤 그레이스	가족	
이미진 조앤 그레이스	이지훈 아녜스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 지향	성찬 봉사	복사
1월 14일	김유화	송명근	이경자	이경자	김종선	양글라라 한테레사
1월 21일	김진수	민완준	김미혜	김미혜	민덕미	조바실리오 양글라라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오늘 연령회 모임

미사후 아래성당 연도 RIP 이정진 안토니오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Youth 견진성사 교리반에 초대합니다~

대상: 6학년 이상~ 12학년까지의 영어권 청소년

견진성사일: 2024. 3/30(부활성야)

첫모임: 2024년 2/18(주일) 10:30am

문의 및 신청: 1/21(주일)까지 Sr.효주 347-834-5784

“청소년의 웃음소리는 ☺ 하느님의 음악입니다. ♪”

청소년 한사람, 한사람을 교회로 초대해 주세요~

▶울드레야 미동북부 2024년 신년 교례회

일시: 2024. 1/21(주일) 오후 3시 30분. 데마레스트 성당

▶제66차 기초 성령 세미나 신청(미동북부 지역 성령쇄신 봉사회)

일시: 2024. 3/14(목) 5pm~3/17(일) 5:30pm 3박4일

장소: 뉴튼 수도원. 지도: 봉사회 지도신부 및 사제단

신청마감: 2/29(수) 참가비: 390불(숙식제공)

신청: 성령기도회장 이안나 917-579-5072

▶레지오 마리아 캐나다 성지순례(미동북부 지역 교육협의회)

일시: 2024. 4/25(목)~4/27(토) 2박3일

장소: 캐나다(Montreal, Quebec) 지도: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

참가비: 800불. 참가비: 390불(숙식제공)

신청: K Tour 김요셉: 201-394-8060 마감: 2/29(수)

▶유아세례 신청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09:15) *신청: 사무실

▶청년회 스키캠프

스키를 타고 즐거운 추억을 남기고, 서로 친교를 쌓는 좋은 기회에 새신자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장소 : Clintondale,NY, 일정 : 2/2(금)~2/4(주일)

참가비 : \$230(1/20까지), \$250(1/21부터)

참가신청: 청년회

▶청년, 가톨릭교회 교리서 필독반 모집

대상: 가톨릭 교회의 교리공부를 원하는 청년

일시: 월 1회 토 3pm. 신청: Fr.가롤로

▶청년,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기도, 봉사, 따뜻함이 있는 곳!

대상: 20대, 30대, 40대 남녀

활동: 매주 회합을 통한 기도 및 활동나눔, 봉사, 본당 협조등

*희망의 모후Pr./ 매주목 6pm 문의: 단장 정다경 마리아

347-514-5783 *우리즐거움의 원천Pr./ 매주일 11am

문의: 단장 이기원 스테파노 929-208-5147

▶노숙자들을 위한 의류 기부

각 가정에 입지 않는 옷들을 기부해 주시면, 노숙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 노숙인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입을 옷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옷을 바로 입으실 수 있도록 깨끗이 선별하여 사무실로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옷수거: 본당 사무실. 문의: 347-834-5784

기부처: 노숙자 보호소(브루클린)

▶2024년도 달력 배부

본당 달력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오서 받아가세요~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 공지사항
- 기부
- 주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서의 에티켓

성당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세요

1. 성당

- 한국미사후 성가대석에 음식물과 음료등의 쓰레기를 일체 두지 않습니다.
- 주일 11시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가대석에 들어오거나 지나다니는 것은 미사에 방해가 됩니다.

2. 다미아노 홀

- 시설물(사진액자 등)에 손을 대거나 파손하지 말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시 사무실에 알립니다.
- 친교시간 외 모든 모임 시, 외부 문을 열어두지 않습니다.

3. 아랫성당

- 나무로 만들어진 성당 바닥이 긁혀 손상이 가지 않도록 테이블이나 연단을 끌어 옮기지 않습니다.

3. 2층 한국공동체 건물

- 수도원과 가까운 곳이므로 더 침묵하고 깨끗이 사용합니다.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FLORA YANG)
 무역 수입 IMPORT & 수출 EXPORT
 657-337-5130
 marketing@czlusa.com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 nycacu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백승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더큰집
 TEL. 212-564-8238

WONJO
 New Wonjo
 212-695-5815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 1,2,3 FL, New York, NY
 212-594-4963 견 스테파노

HB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Tel : 347-840-2112
 (32 St.- 33 St.) Fax : 212-631-8070
 New York, NY 10001 hanbittour@gmail.co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광고주를 찾습니다.

묵주기도 10만 송이 봉헌하기
 기간: 10/01/2023~ 09/30/2024 *현재: 26,165단

故 김경련 올렸다 자매 장례미사

김경련 올렸다 자매의 장례미사가 본당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1월 5일 10시, 김가롤로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본당 교우들과 고인의 지인들은 자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하였으며, 미사중 고별식에서 마음을 담은 꽃을 봉헌하며 올렸다 자매를 추모하였다. 홀로 살아가던 자매의 선종을 가장 먼저 발견한 이웃, 전 베드로 형제와 아람 모하메드는 ‘온정있게 잘 대해 주려 노력하던 고인의 정성이, 어렵게 사는 이들, 신자들, 어린이들 가슴에 사랑을 남겼다.’고 회고하였다.



‘하늘의 성인들이여 오소서.
주님 천사들이여 마주 오소서’



‘이 교우를 부르신 그리스도님. 이 교우를 받아들여 주소서
천사들이여. 이 교우를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가소서’

주님 이 교우를 받으소서. 주님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